

보도일시	2016. 11. 7.(월)	배포일시	2016. 11. 7.(월)
담당과장	기획재정부 국방예산과장 이상운 (044-215-7450)	담당자	주병옥 사무관(044-215-7454) jbw0901@korea.kr
	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고광희 (044-215-2750)		염철민 사무관 (044-215-2754) yum7157@korea.kr
	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장 유법민 (044-203-4330)		박태현 서기관 (044-203-4331) phttop@motie.go.kr
	국방부 전력계획과장 이근표 (02-748-5620)		조현철 중령 (02-748-5605) midget25@mnd.go.kr

제목 : 2016. 11. 7(월) 한겨레
「영터리 자료로 만든 조선 회생계획」 기사 관련

<언론 보도내용>

- 한겨레는 정부가 10.31(월) 발표한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 중 군함 발주 총사업비(6.67조원)와 관련,
 - ① 군함 신규 발주액은 1년 전 확정된 '16년 본예산의 '장보고3-배치2' 총사업비(3.4조원)와 '16년 추경예산 총사업비(3.3조원)의 합으로 산정
 - ② '17년, '18년도 군함 신규 발주가 없음
 - ③ 3조4천억원에 이르는 일감인 '장보고3-배치2'는 잠정적으로 대우조선 몫으로 되어 있는데, 새로 주는 일감으로 간주하고 정부가 대우조선 구조조정 계획을 짰다고 보도

<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입장>

-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 중 군함 발주 총사업비(6.67조원) 관련
- ① 구조조정 방안이 마련되기 전 이미 결정된 '장보고3-배치2' 총사업비(3.4조원)를 포함했다는 언론 보도와는 달리 '16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의 총사업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

- 군함 신규 발주액(6.67조원)은 '16년 추경예산과 '17~'18년에 발주 예정인 군함의 총사업비로만 구성되어 있음
- ② '17년에는 호위함, 고속정 등을 조기 발주할 예정이며 18년에도 다수의 군함 발주가 예정되어 있음
- ③ 군함 발주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조선사를 선정하므로, 사전에 특정 조선사(대우조선해양)를 위해서 발주를 계획하고 일감을 주는 것은 불가능함
- 따라서, 대우조선에게 군함 발주를 통해 일감을 주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우조선 구조조정 계획을 짰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ipr@korea.kr

